



비수도권 첫 '올림픽데이런' 전주서

도-전주시-대한체육회

성공 추진 위해 '맞손'

11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선착순 6000명 규모 진행

참가자 모집은 19일부터

전북에서 비수도권 최초로 IOC(국제 올림픽위원회) 공식 인증 달리기 행사인 '올림픽 데이런'이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대한체육회는 6일 오전 도청에서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 가운데)이 참석해 손을 맞잡았다. 올림픽데이런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행사는 서울에서만 네 차례 개최됐다.

올림픽 데이런은 IOC가 제정한 '올림픽 데이(6월 23일)'를 기념해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유일하게 IOC의 인증을 받아 주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 16일 전주월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 가운데)이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올림픽데이런' 행사는 IOC(국제 올림픽위원회) 공식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선착순 6천 명 규모로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은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러너블(RUNABLE)' 앱을 통해 시작되며, 달리기 코스는 5km와 10km 두 종류다.

이날 행사에는 스포츠 스타 팬사인회를 비롯해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응원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공식 티셔츠와 스포츠 가방, 티모리아 타월 등으로 구성된 기념 키트가 제공된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고, 대한체육회는 행사 기획과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IOC 공식 인증을

받은 권위 있는 올림픽 행사를 전북에서 유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주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알리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 전북의 스포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 대응 물품을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구급상황관리센터는 무더위쉼터 안내, 초기 응급처치 지도, 병원이송체계 운영 등을 통해 24시간 운영환자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민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이어지고 있다.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509회,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장 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전해질 음료와 정제염 등 대응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으며, 활동 시간 조정과 교대조 운영을 통해 장시간 고온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메이니 프린스 프리바 대표, 엄기욱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

친환경 새만금 개발 3자협력

새만금청, 국립군산대 · 프리바와 글로벌 협약 체결

도시계획 · 재생에너지 · 청년인재 양성 등 협력 약속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메이니 프린스 프리바 대표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의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점검회의 날로 명시해 협력의 지속

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졌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제3회 ASK 2050 새만금 정책 포럼에서 메이니 프린스 프리바 대표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재생에너지, 수처리·인공지능(AI) 첨단기술, 건강한 음식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이는 이러한 대안도 적용할 수 없다"며, "지역 청년들이 함께 꿈꾸고 참여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이 중요하데, 새만금은 계획도시이기에 이러한 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사람이 살 곳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비전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글로벌 기업,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실현, 친환경 개발을 선도하는 새만금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과 스마트농업 솔루션 등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새만금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인재 양성과 혁신 연구에 힘쓰겠다"고 했다./이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폭염 장기화... 전북소방, 생활밀착형 활동 대책 지속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역대급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소방활동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상황대책반을 휴일 없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며,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운영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후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17층 작전실에서 폭염 대응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폭염

소방기본법 근거 도심 살수·용수 지원 등 현장활동 강화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방안을 비롯해 급수 및 살수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도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폭염 대응 과정에서 현장대원들이 입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대책도 함께 검토했다.

폭염기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에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철도시

설, 축산농가, 도심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용수 지원과 살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폭염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마을회관 예방교육, 취약지역 순찰, 독거노인 돌봄 등 도민 밀착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운영질환자에 대비한 구급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내 109대의 구급차와 117대의 펌볼런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열음조끼, 열음팩, 전해질 용액 등 9종의 폭염 대응 장비를 현장에 비치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8월 중에는 1,138점

